

# 이틀 후에 사라지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법:

## 유비호의 유연한 풍경

글: 양지윤, 독립 큐레이터

플라톤에 의하면, 신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신도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 신은 어느날 단순하게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세계는 완벽하게 혼돈의 상태였고, 신은 그 혼돈에 일정한 질서를 주어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나는 매력을 느꼈고, 나의 지적 개념들에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우리의 세계가 실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환영에서 시작하였다면,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에서, 천천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혼돈을 실재로 변화시켰다면, 무엇이 될까?<sup>1</sup>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진짜인가. 우리는 미디어, 정부와 대기업, 자본주의, 종교 단체, 혹은 정치 단체들에 의해 조작된 현실들 속에서 살고 있다. 전기메카니즘을 장악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현실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이 만들어 낸 거대한 사회 시스템은 개인이라는 존재가 수동적이며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움직여주기를 원한다.

유비호는 허구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이들의 순수한 듯 여겨지는 의도를 믿지 않으며, 그들의 권력을 믿지 않는다. 작가는 마음 속 깊이 혼돈에 매혹되며, 그 속에 숨겨진 질서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필립 딕이 말했듯이, 작가는 '2 일 후에 무너지지 않을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혼돈 속 규칙 혹은 진짜의 시스템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유비호에게는 허구의 현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허상의 현실 속에서 진짜를 찾기 위해, 유비호는 매스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의 '사건'들에서 작품을 출발한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과 해석학 사이의 분명한 선을 긋는다. 그에게 예술이란 무엇이 현실인지를 파헤쳐서 정의내리는 도구라기 보다는, 현실 속 내재한 혼돈을 재현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개인만의 기호이다. 유비호는 현실 속 내재한 혼돈에 존재하는 내러티브, 이미지, 사운드, 이념의 외관과 그 과정을 재현하며, 하나의 재현된 현실을 예술작품이라 부른다.

우리는 신문을 읽고, 우리의 예술에 참여하며, 밤에 잠을 자러 간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듣듯이, 불가능의 강한 물살에 의해 혼돈을 이끄는 모든 것들은 범람한다. 예술가로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

<sup>1</sup> 2 일 후에 무너지지 않을 세계를 만드는 방법, 필립 딕, 1978

전에 알았던 것 들 보다 훨씬 예술사의 무한한 대안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일렬의 스타일들을 반영한다. 최초로 은혜받았던 예술가의 무지함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2</sup>

앨런 캐프로의 64 년의 선언처럼, 예술가는 더이상 현실에 무지하지 않으며, 과거처럼 예술가의 현실에의 무지와 무관심은 인정받지 못한다.

## 사회 시스템의 풍경

풍경화란 미술사적으로 현실을 그려내려는 예술가들의 시도가 확연하게 들어나는 장르였음에도, 작가가 재현한 세계는 하나의 허구로 다루어진다. 풍경화가들은 실재를 재현하기를 분망하지만, 실재는 재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결국 재현된 현실은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세계, 유토피아로 다루어진다.

본 전시 <유연한 풍경 Flexible Landscape>는 2008 년 한국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이루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에 관한 풍경을 재현한다. 역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의 역사의 주류를 본질적으로 단절해버리는 혁명적 계기를 가리킨다고 할 때, 유비호가 본 전시에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사건'은 한국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가 선택한 두 개의 구체적 사건인 송도신도시와 태안반도는 사회적 교환의 미세한 메커니즘 속에서 존재하는 권력들의 시스템에 관한 사건이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자본주의와 한국적 상황들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재현하는 풍경을 만든다.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메워 167 만평의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자연 변형의 현실이며, 태안반도는 1997 년 기름 유출로 인해 서해를 원유로 뒤덮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갖는 생태학, 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학적 이슈들을 작가는 상상하고, 이미지화시키고 은유화시킨다. 객관적 리얼리티로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을 작가는 주관적 상상력을 통해 허구로써 다룬다. 외부적 요소와 개인적 심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구조 속, 작가가 만들어낸 이러한 세계를 서브토피아(sub-topia)라 이름짓는다.

## 서브토피아

서브토피아는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와 같은 거대 사회 시스템의 현상항들에 작가 개인이 제시하는 상상과 에너지를 부여하여 탄생된 세계이다. 이는 변화의 긍정적이거나

---

<sup>2</sup> 세상의 존재로서의 예술가, 앨런 캐프로, 1964

부정적이라는 가치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생성의 변화로서의 존재론적 역할이 더 강하다. 서브토피아의 존재 자체가 내포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자연적 생성이 작가에게는 더 중요하다.

유비호의 서브토피아의 풍경 속 권력들의 시스템은 다수로서 존재하며 기능한다. 한쪽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며, 권력이 정치적 대상만은 아니다. 작가는 시민이 단번에 권력들의 시스템을 알아채지 못하는 곳, 즉 교육, 종교, 환경, 음식 등에 스며들어 기능한다고 말한다.

서브토피아의 역할이란 매스미디어가 재현해 낸 허구의 현실에 대안하는 진짜의 현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아티스트가 제안하는 서브토피아가 전시라는 미술 소통의 시스템을 통해 현실 세계에 자극을 제공하기를, 유비호는 기대한다.

## 전시의 구조

전시장의 첫번째 입구 공간는 <Deep Light> 시리즈로 검은색의 빛을 먹어 입체로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이 위치한다. 기름에 의한 자연의 파괴 이후 변이된 인간이나 자연의 형태들인 이 시리즈는 현대인들의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응어리이기도 하며, 지난 8년 동안 까맣게 타버린 작가의 침묵의 응어리이기도 하다.

<Deep Light>의 형태들이 다시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 작업인 <A Better Tomorrow>는 한 소년이 'A Better Tomorrow'라는 종이를 잡고 엮으려 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는 소돔시처럼 불에 타고 있다.

작가의 alter ego 인 이 소년은 엮으려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적이고 연극적인 상황은 현실을 은유화하여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유비호만의 어법이다. 또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 작업인 <파도가 있는 풍경>은 우키요에 스타일의 동그란 풍경화이다. 멀리서 도시가 보이며, 파도 치는 물 속으로 UFO 같은 형상이 떨어지고 있다.

<Flexible Landscape>은 한국은행, 조선일보, 순복음 교회와 같은 현실 속 건물들은 작가의 주관적 시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들의 상징인 이러한 건물들에 작가는 바퀴를 달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제시한다. 일반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우리를 통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력 기관들을 작가는 유희적이고 달콤하게 재현한다.

자동차 경주 게임을 보는 듯한 영상인 <Euphoric Drive>는 시속 10~20 킬로 정도로 노란 길을 끊임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간판들이 지속적으로 스쳐지나가는 3D 애니메이션이다. 작가는 현대인들은 낮선공간에 가더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있으면 친숙감을 갖는 감정에서 출발한 작업이라

이야기한다. 즉,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 한국에서 스타벅스 커피점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 이러한 황홀한 기분상태를 나타낸다 말한다.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인 <Invisible City>는 비둘기의 군집의 시스템을 다룬다. 대학로의 비둘기떼들이 모여있다가, 작가가 직접 개입으로 비둘기떼가 사라지면, 바닥에는 'invisible city'라는 글이 드러난다. 본 전시의 다른 작업들과는 상반되는 썰렁하고 달콤하지 않은 이 영상은 다른 종의 시스템을 보여주며, 앞으로 유비호의 작업이 펼쳐질 지점들을 제시한다.

### **글을 맺으며,**

유비호는 2000 년의 <강철태양>과 2001 년의 <몽유>라는 두 번의 개인전 이후, 2009 년 세번째 개인전인 <Flexible Landscape>을 열었다. 8 년이라는 준비의 시간은 작가에게 많은 사적 변화들과 함께, 고민의 순간들이었다. 본 전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작가가 고민해왔던 사회 시스템과 예술의 자율성(autonomy), 한국적 오리지널리티와 미디어의 접합지점 등을 연구한다. 또한, 2000 년 이후 바뀐 미디어의 환경들, 사회 시스템의 변화, 무엇보다도 작가 자신의 변화는 이번 전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즉, <Flexible Landscape>는 지난 8 년간 작가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회 환경과 개인의 심리의 충돌 혹은 만남에 관한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예술가의 현실 개입과 사회와의 관계를 실험하는 작가는, 구체적인 현실 사건들에서 출발하여 탄생한 서브토피아를 제시하며, 이러한 서브토피아가 현실세계에 일정한 자극을 주기를 희망한다. 사회 권력들 시스템의 재현인 서브토피아는 하나의 허구가 아니기 때문이다.